



이 상 희 팀장
(주)삼양사 마케팅팀

내 탓과 네 탓

최근 WBC(World Baseball Classic)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며 4강에 올라가자 전 국민이 야구 해설가가 된 것 같다.

지난번 동계 올림픽을 마칠 때쯤엔 쇼트트랙의 전문가가 되었고, 축구 경기가 펼쳐지면 출전국의 선수 명세서부터 감독들의 작전 차이까지 들먹이며 온통 축구광이 되곤 한다.

금년 초 내내 온 국민을 즐기세포 학자로 양성시키더니 어느새 다시 스포츠 전문가로 이끌고 간다. 이렇게 우리 국민을 이끌어가며 관심과 흥미를 주도하는 제4의 정부인 '언론부' 라고 가히 불릴 만하다.

이 언론부는 매스미디어의 힘을 등에 업고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

흔히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도한다' 는 대 전제하에 무엇이든 먼저 특종을 잡는다는 특성상 흔히 자극적이고 침소봉대 하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닌지. 특히 식품과 관련된 보도의 경우 어떤 보도가 만들어 올 파장과 영향에는 아주 무더 보인다.

알 권리의 보도와 함께 사회의 공기와 목탁이라는 역할을 자처하는 나머지 그 사명감이 지나친 탓인지 오히려 지나쳐서 부족함만 못한 결과를 만드는 것 같다. 이것은 때때로 처음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이미 과잉 보도된 탓으로 피해를 본 그 산업체의 피해는 어쩔 것인가?

한 동안 '카파라치' 라는 신종 직업이 기승을 부린 적이 있다. 불법을 자행하는 차량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직업인데 이들을 가르치고, 개업시키는 학원까지 있다고 한다.

최근에 모 중소도시에 있는 작은 식품업체는 자사 제품에 클레임을 요구하며 배상을 요구하는 여성 고객을 고발하게 되었고, 그녀는 공갈 및 사기죄로 입건된 바 있다. 우연히 모 제품에서 불량을 발견하여 전화로 항의를 하자 그 회사는 무마조로 금전을 건넸고, 여기에 재미를 붙인 그녀는 전문적으로 소도시를 돌며 전화 파라치 사업을 하다 잡힌 것이다.

대형 식육업체를 상대로 이런 형태의 고발업을 하는 '식파라치'가 생겨나 상당한 문제를 야기해 오고 있다고 한다. 2003년 7월부터 발효된 PL법(제조물관리법)이 시행된 이래 모든 제조물들의 제조업자는 제품의 표기를 신중히 해야만 했는데 표기 내용과 상이하면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국내 육계업계는 반복되는 폭락, 과잉의 생산 사이클과 조류인플루엔자 파동, 지속적인 질병 피해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면서도 최근에 닭고기 소비량이 연간 6.6kg에서 8.0kg으로 증가해 쇠고기 6.5kg을 누르고 2위의 식육으로 성장했다.

서구 유럽은 오래전에 닭고기 소비량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료효율성이나 생산기간, 건강 등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1위인 돈육과 어깨를 겨루리라 믿는다.

이는 닭고기 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홍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맛있는 장점까지 겹쳐서 젊은 층의 인기속에 지속적인 성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편,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AI 혈청검사 보도는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산업의 입장이 균형된 감각으로 유지되지 않고 일방적인 의견만 마구 보도되는 것은 멀리 우지라면 파동, 만두 파동, 최근의 김치 파동으로 이어지기까지 너무나 혼란 '언론부' 전가의 보도인 듯 싶다. 더구나 HPAI 대유행에 대비 6월에 도상방어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발언은 우리 육계인들의 마음에 또한번 비수를 꽂았다.

이번 AI 보도는 비록 짧게 1회성으로 지나갔지만 자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당시 처럼 실제와 다른 폭풍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 많은 식파라치에 버금가는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복지부의 이같은 발언이 과연 때와 방법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금년 7월에 발족을 목표로 가칭 '식품 안전처'가 정부 주도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그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등에 분산되었던 식품 안전 관련 기능을 전면 통합하여 차관급의 기관을 세운다고 한다.

우리는 식품 안전처의 발족을 지켜보며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보고 놀라는 일이 없기를 진정 기대할 뿐이다.

국민의 먹거리, 고단백 식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우리 계육업계의 입장에서는 상호 공생공영 공존하는 WIN-WIN의 중재자가 되어 주리라 믿고 싶다.

어느 한편의 이익에만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감각으로 산업계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기관이 된다면 더 이상 내 탓, 내 탓하는 불쌍사나운 행태는 사라지지 않을까?

닭고기가 1위의 금메달을 차지할 때까지 계육 관련 종사자 모두의 힘찬 분발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잘 되든 못 되든 우리의 탓으로 크게 생각하는 업계가 되길 기원한다. 